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21년 8월 제258호 http://cnmhs.net

PENSION & RESORT MIRVILL
자연과 함께하는 추양첨 힐링타운
미르빌 펜션&리조트
예약실 064-792-2918 모교동문 할인
대표 조 성 민(16회) 010-5402-313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46번지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강신열 편집인 : 이우정 인쇄인 : 한흥교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학생이 행복한 학교! 모교 시설 눈부시게 변모"

10월 전국기능경기대회 앞두고 1차 마무리 공사 박차, 내년엔 2차 공사

모교가 상전벽해(桑田碧海: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하다.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바뀐 것을 비유하는 말)로 눈부시게 변모하고 있다, 올해 3월 모교 출신 이종업 교장이 부임하면서 열정으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 모교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21년 10월 4일 모교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본부 및 주경기장으로 지정되어 열리므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실습실 및 운동장과 스탠드, 담장과 주위 환경개선에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공사에 박차를 가해 기능경기대회를 무사히 치르도록 무더위에 땀방울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모교 운동장에 설치한 기존 시멘트 관중석에 멋진 지붕을 씌우고 시멘트 위에 나무를 시공하여 안락한 공간이 조성되었다. 체육대회 및 각종 공연시에는 관중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각종 공사로 울퉁불퉁해진 모교 도로 위에 아스팔트를 새로 시공하고 안내 문구를 그려 외지인의 진입 시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 학교 내 조경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고 담장 정비공사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본관 건물 복도에 층별로 색깔을 달리 하여 도색하고 교실도 새로 칠하여 산뜻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했다. 층마다 휴식공간과 각종 시설을 새로 정비하여 교사와 학생이 더불어 담소를 나누며 쉴 수 있도록 했다.

모교 운동장 스탠드에 멋진 지붕과 나무의자가 설치되어 행사 시 안락한 관람석으로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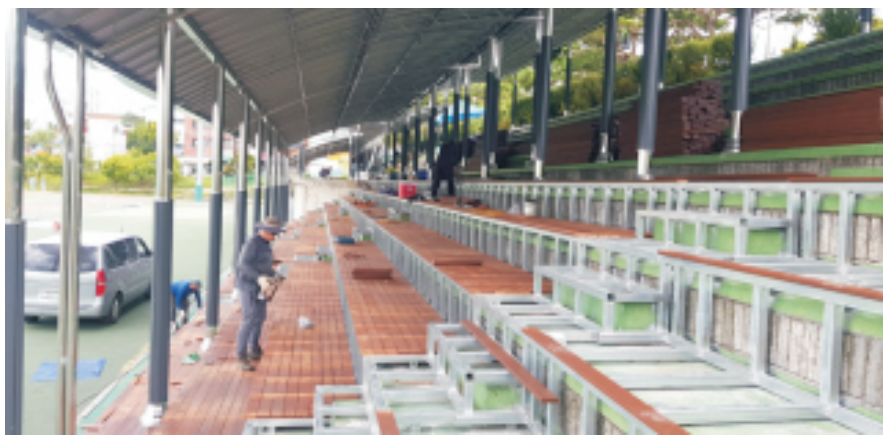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본관 뒤 4동, 8동, 10동, 11동 건물을 철거하여 지상 4층 규모의 신축건물을 시공한다. 이 건물은 '학생이 행복한 학교'라는 테마로 각종 학생활동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축건물에는 1층에 휘트니스센터와 1, 2층 계단을 이용한 오픈도서관 등 다양한 쉼터를 만든다.

이종업 교장이 부임하면서 중점사업으로 국방부지정 기술부사관특성화고 지정(42명)이 된데 이어, 혁신도시 대비 공기업반 확대 운영, 6개 학과 첨단학과로의 재구조화, 아름답고 친화적 학습공간 조성(300억 화보)등이 진행되어 학교시설 보완과 더불어 열정과 땀이 결실을 보고 있다.

체육대회나 공연 시에 비가 오더라도 피할 수 있어 안성맞춤이다.

이종업 교장의 학교 시설 일신과 학생의 질도 높여 중부권 최대의 명문 특성화고교의 위상을 되찾을 구상에 박수를 보낸다. 오랜만에 모교를 와본 동문들은 면모를 일신한 모교를 보고 놀랄 것이다. 이종업 교장의 모교변화 대작전에 동문들의 성원과 동참을 바란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시공업체에서 관람석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모교 운동장에 멋진 스탠드가 시설되어 앞으로 활용이 기대된다.

“애정어린 관심과 열정이 있는 곳에 활기가 살아난다”

본관 건물

1층 복도

1층 현관 방송실

2층 복도

2층 세미나실

3층 복도

3층 휴게실

4층 복도

5층 복도

단장된 아스팔트

조국근대화의 기수탑

민원인 주차장

리모델링 발명교실

호국 영웅동산

운동장 본부석

“경험과 실력 연마, 멘탈 강화하여 내년엔 반드시 우승”

〈SBS배전국고교동창골프〉 울산공고에 연장 석패, 올해 하반기 8강 성과

우리 동문골프팀 선수들이 하반기 8강전을 앞두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기에 앞서 SBS골프 방송에 양팀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모교동문골프팀이 8월 16일 월요일 오후 블루원상주골프장에서 열린 SBS배전국고교동창골프대회 하반기 8강전경기에서 역대 우승팀인 울산공고와 연장 접전 끝에 아깝게 져 내년을 다시 기약하게 됐다.

모교팀은 이날 울산공고와의 8강 경기에서 1번홀을 지고 2번홀에서 이긴 후 3번홀에서 다시 져 1업을 진 채로 4, 5, 6, 7번홀서 접전을 벌이며 계속 비긴 후 8번홀에서 승부수를 던져 이긴 후 마지막 9번홀에 다다랐다. 9번홀에서 상대는 그린에 볼을 잘 올린데 반하여 우리팀은 벙커와 러프에 빠져 패배의 위기에 몰렸다. 울산공고는 홀컵에 바짝 붙여 파를 기록했고 우리 팀은 5미터 긴 거리에 볼이 떨어져 주장 허영준 선수가 마지막 파퍼트를 극적으로 성공시켜 승부를 연장으로 이끌었다. 연장 10번홀에서 초반 그린에 볼을 잘 올리며 좋게 출발했고, 상대팀은 러프에 볼이 붙어 이기는 듯 했다. 이 장면에서 울산공고 선수가 과감하게 볼을 홀컵에 바짝 붙이는 나이스샷을 했다. 그리고 우리팀은 그린에 놓인 9미터 거리의 볼을 약하게 굴려 2미터 거리에 붙여 놓았다. 우리 선수가 그 볼을 넣으면 다시 연장전인데 볼은 살짝 못 미쳤다. 세상사처럼 운동경기도 마찬가지다. 공은 둥글고 승부는 잔인하다.

지난 7월 우승팀 김천성의고를 연장 끝에 극적으로 이기고 8강에 진출했던 모교팀은 상승세를 타지 못했지만 많은 것을 배우며, 우승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을 계속할 마음을 다졌다.

재작년 대회에서 상반기 8강 성적에 이어 지난해 통합 4강에 진출하며 공동 3위에 입상하여 모교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수령한 바 있는 모교팀은 올해도 하반기 8강이라는 성적을 거두어 강팀으로의 입지를 굳혔다,

해마다 전국고교 동문 수백 개 팀이 출전하여 예선전을 갖는데 “예선 통과가 본선 게임보다 어렵다”는 말처럼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작년처럼 경기장에서 맘껏 응원하지 못하는 동문들은 경기 후 밴드나 전화로 소식을 듣고 있다.

모교 골프팀은 전종현 단장의 리드로 주장 허영준(25회) 선수와 이문휘(27회) 김경훈(31회)선수가 단합된 모습으로 열심히 연습하며 실전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우승은 하늘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처럼 엇비슷한 실력의 동문팀들이 만나 순식간에 경기가 결정되는 바람에 운도 따라주어야 한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일부 열성 동문들이 재정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후원해주어 모교 선수들은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내어 모교의 이름으로 도전을 계속할 수 있었다.

사업이 바쁜 데에도 경기가 있을 때마다 블루원상주골프장에 와서 응원해준 임정규 동문(12회)은 “전종현 단장님과 선수들이 직장에서 시간을 내어 모교를 위해 열심히 뛰어준 데 대하여 감동을 받았다”며 “우승할 때까지 계속 도전하겠다는 집념에 박수를 보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성원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전종현 단장과 선수들은 “동문들의 응원에 보답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더욱 경험과 실력을 쌓고 멘탈도 강화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우승하겠다”며 “오늘 시합을 교훈삼아 짧은 퍼팅에 흔들리 않도록 연습을 많이 하겠다”고 다짐했다.

모교팀의 8월 16일 울산공고와 하반기 8강전은 녹화되어 9월 14일(화요일) 밤 10시 30분 SBS골프에서 방영된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정찬목 모교 교사의 인도로 경기 전 기를 모으며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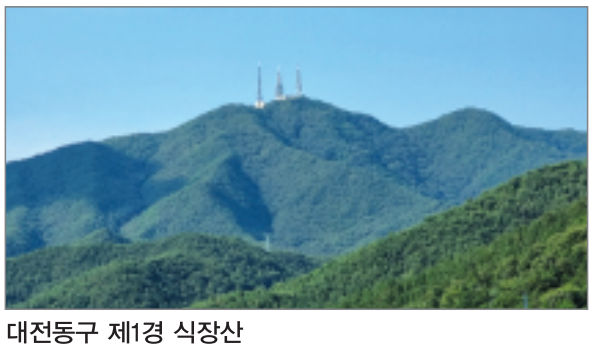
수백개 팀이 출전하여 8강에 올라 대진표에 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연습장에서 우리 선수들이 퍼팅 연습을 하며 실전감각을 익히고 있다.

연장 10번 홀에서 승패가 갈라지면서 양팀 선수들이 인사하고 있다.

“추억 물들기 무지개빛 공존은 먼 옛날 풍경소리로 사라지고”

〈여름나기 풍경〉 다수의 군집보다 홀로서기 마스크 세상 강건하시길


대전동구 제1경 식장산

여름나기 간이풀장

생태연못 풍경

식장산 수원지

식장산 전망대

여름날의 기상 나팔꽃

전북 임실 치즈파크 풍경

지리산 정령치 풍경

식장산 보호수 200년된 단풍나무

불청객 코로나바이러스19 체크가 일상의 삶이 되고 랜드마크 온 세상. 다정스런 기쁨과 소담소담 즐기기 만남과 아쉬움 작별 속에서 추억 물들기 무지개빛 공존은 먼 옛날 풍경소리로 사라지네요.

새 세상 대 전환 모드 다수의 군집보다는 홀로서기 생활의 각인 마스크 풍경, 화려한 낭만의 꿈 바캉스는 스마트 한 영상 눈요기로 대리만족하고 있어요.

질풍노도의 일상 변화 속에서 바이러스 장벽에 줄서기 승자독식 디지털 세상, 동서고금 글로벌 소통, 자연의 재난 기후재앙 벼락 맞은 아이티 세상도 빈익빈일세.

강건하게 가족 사랑과 동문님들의 구비구비 고비 길 일상의 생존에 운수대통으로 대박 나시길 축원드립니다. 8월 20일 한적한 오후에 폭염 폭우 기상 이변과 아이티 강진소식을 접하고서 글과 사진을 올려봅니다.

– 황규성 편집위원(13회) –

〈시: 8월의 편지〉

“갈매기가 외로움에 비틀거릴 때, 우리는 백사장 주인공되어…”

청춘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소리에 밀려온 갈매기가
외로움에 비틀거릴 때
우리는
백사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백설 공주입니다.

온통 젊음으로 출렁거리는 곳
그곳은 청춘의 광장입니다.
두근거리는 사랑 하나로
행복을 주워 담았고
예쁜 당신과 함께
황금빛 물결로
밀어를 실어 나른 나루터입니다.

해마다 8월이 오면
태양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그날의 행복을 찾아
추억의 바닷길을 걸었습니다.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기에
더 높이 날고 싶은데
세월은 바보입니다.

등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 8월에는
코로나가 없는 바다에서
아름다운 청춘과
멋진 행복을 되찾게 해 주십시오.
백설 공주와 함께 말이에요.

아주 먼 훗날,
세월의 답장을 받고 싶습니다.

-草野 박익환(13회)-

“도쿄올림픽 충청 태극검사 오상욱 선수 세계정상에 서다”

자랑스런 충기인 도선기(21회) 대전대감독 훌륭한 제자 키워내

도선기 감독이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제자 오상욱 선수와 함께 했다.

충청출신 검객인 펜싱 사브르 세계랭킹 1위인 오상욱 선수(성남시청 소속)가 맹활약하며 펜싱 사브르 남자 단체 금메달을 차지했다.

지난 달 29일 벌어진 펜싱 사브르 남자 단체 결승에서 이탈리아 선수를 5대 0으로 제압한 오상욱의 활약에 힘입어 압도적인 차이로 우승한 원동력인 오상욱 선수의 뒤에는 도선기 모교출신(21회) 대전대 감독의 지도가 있었다.

오상욱은 대전 매봉중과 송촌고를 거쳐 대전대를 나왔다. 이번 올림픽 펜싱 금메달은 대전,충남에서 충남기계공고 출신 김영호(24회.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이어 두 번 째이다.

대전대 펜싱부는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펜싱종목 금메달리스트인 김영호 선수를 배출한데 이어 18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오상욱 선수를 배출해 펜싱 강호 대학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여기에는 도선기 감독의 남다른 리더십이 화제다.

충남기계공고와 더불어 대전대 등 대전이 펜싱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매김한 결정적 계기는 도선기 감독 같은 열정적인 지도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사비를 털어가면서도 묵묵히 선수들과 동거동락한 결과다. 도 감독은 ‘2021년 세계청소년・유소년펜싱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도선기 감독은 언론 인터뷰에서 제자 오상욱에 대해 “부상을 계속 안고 갔고, 본인이 이겨내면서 결승전에 올라가서 그런 걸 다 잊고서는 완벽하게 진짜 잘 뛰어줘서 고맙고 수고했다고 말해줬다”고 언급했다.

현재 모교에는 도선기 감독과 김영호 시드니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 펜싱 유명 선배들의 뒤를 이어 펜싱부 후배선수들이 올해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방송에서 겸손하게 인터뷰하는 도선기 감독을 보니 절로 자랑스런 충기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도선기 친구여, 수고 많았소.

–임동현 경기북부동문회 총무(21회)–

“기사를 제보해주세요”
각 회수나 단체동문회 소식과 개인동정을 알려주시면 정성껏 게재하겠습니다.
총동문회사무처 편집실 ☎(042)252-5656

“어쩜 그리도 잘 생겼는지, 배우 뺨 친다”

한국 펜싱 사브르 단체 4명의 선수 금메달 사냥

도쿄 밤하늘에 4번째 금메달의 태극기를 올라가며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펜싱 사브르 남자대표팀의 4명의 태극 검투사들이 또다시 큰 일을 해냈다. 어쩜 모두 그리 잘 생긴 사람들로만 뽑았는지, 화면에 비친 인상들이 배우 못지 않다.

사진 왼쪽부터 오상욱(25), 구본길(32), 김정환(38), 김준호(27) 등 4명의 검객들은 2012년 런던에 이어 당당히 2연패를 달성하며, 코로나와 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멋진 선물을 보내왔다. 독일과의 준결승전에서 45대 42 최고의 위기순간을 투혼으로 이겨내고, 세계최강 이탈리아와의 결승전에서 45대 26의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 대한민국 파이팅!.

모교 축구팀 창단 이래 처음 전국대회 준우승 쾌거

추계전국고교축구 강호 연파하며 결승 진출, 진주고에 승부차기 패

창단 처음 전국대회에서 준우승 하자 대전시축구협회에서 현수막을 걸어주었다.

모교축구팀이 결승전 후 준우승을 기념하는 단체사진을 찍었다.

결승전 직전에 모교 팀이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창단된 모교축구팀 창단기사가 총동문회보 46호에 게재됐다.

모교 축구부가 창단 이래 처음 전국대회에서 준우승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모교팀은 지난 7월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 경남 합천에서 벌어진 2021년 추계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전국 48개 팀이 참가하여 예선 3전 전승으로 조 1위로 예선을 통과하여 16강전에서 경기서해고를 1대0, 8강전에서 서울 경희고를 5대0으로 대파하고 4강에 올라 강호 경기광문고를 1대0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 경남 진주고와 우승을 겨뤘다. 모교팀은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에서 아깝게 2대4로 패하여 준우승했다.

모교팀은 전반 17분 진주고에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가다가 후반 연속골을 넣으며 2대1로 역전해 우승을 눈앞에 두었다. 하지만 후반 종료 3분 전 진주고에 동점골을 허용하며 연장으로 넘어 갔고 승부차기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다.

양팀은 프로 유스팀간의 맞대결로 이번 대회 최고의 창과 최고의 방패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진주고의 공격진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만 15골을 몰아넣는 등 결승전 전까지 6경기에서 21득점을 기록한 대회 최고의 창이었고, 반면 충남기계공고는 조별리그부터 4강전까지 단 한골도 허용하지 않으며 6경기 무실점을 기록한 대회 최고의 방패였다.

이날 결승전에서 양팀은 치열한 중원 싸움과 함께 시작된 경기에서 먼저 빛난 것은 진주고의 창이었다. 진주고는 전반 17분 중앙 수비수 이찬욱의 긴 패스를 받은 김건남이 개인기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반대쪽 골대를 노린 슛으로 선제골을 뽑아냈다.

진주고는 남은 시간 동안에도 경기를 주도하며 전반을 1-0으로 리드한 채 마쳤다.

그러나 후반에는 충남기계공고의 반격이 거셌다. 동점골을 노린 충남기계공고는 후반 초반부터 세트피스로 득점 기회를 만들며 진주고를 위협했다.

결국 후반 22분 오른쪽 측면에서 정세준의 크로스를 김한서가 헤더골로 연결해 동점을 만들었다. 기세를 올린 충남기계공고는 5분 뒤 역전골까지 터뜨렸다. 진주고의 프리킥을 막아낸 뒤 빠른 역습 상황에서 유선우의 패스를 받은 이현우의 슛이 골망을 갈랐다.

모교팀은 이후 수비를 강화했지만 진주고가 많은 선수를 공격에 가담하며 필사적으로 골문을 노렸고, 결국 정규시간 종료 3분 전 동점골을 내줬다. 후반 37분 왼쪽 측면을 돌파한 진주고 김태윤의 크로스가 수비와 골키퍼 사이 공간으로 절묘하게 떨어졌고 구하민이 침착한 마무리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연장전 동안에도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 팀은 승부차기에 들어갔다. 진주고의 키커들이 모두 킥을 성공시키는 동안 모교팀은 두 번째 키커의 킥이 크로스바를 때렸다. 이어서 진주고 골키퍼가 충남기계공고 네 번째 키커의 킥을 막아내면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회 시상식에서 모교팀 이준규(cnc밀링과 3년) 선수는 우수선수상을, 손혜창(cnc밀링과 3년) 선수는 수비상을 각각 수상했다.

모교 축구부는 2003년 12월 15일 오후 2시 모교 대강당에서 당시 이호길 감독과 20명의 선수와 대전시티즌 관계자와 내빈,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식을 가진 바 있다.

이어 프로축구 대전시티즌은 2008년 9월 충남기계공고 축구팀을 클럽산하팀으로 지정·인수하고 충남기계공고와 창단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

※ 2021년 추계대회 전적 =
▲예선 1차전
(경기 안산FC18 1:0 승)
▲2차전(서울 동북고 2:0 승)
▲3차전(강릉 문성고 3:0 승)
▲16강전 (경기 서해고 1:0 승)
▲8강전 (서울 경희고 5:0 승)
▲준결승4강전
(경기 광문고 1:0 승)
▲결승 (경남 진주고 2:2 무승부
승부차기 2대4패)

–정찬목 편집위원(12회, 모교 교사) –

수입 현황

기간 : 2021년 7월 21일 ~ 2021년 8월 24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연회비 및 발전기금

상	1	김재찬	20,000	전	8	박희종	50,000	전	14	진영칠	20,000	기	20	박경하	100,000
방	1	박만영	20,000	전	8	손월호	20,000	기	14	한경환	20,000	기	20	소병훈	20,000
전	3	박선배	20,000	전	8	임헌표	50,000	기	15	강일식	20,000	전	20	이원우	50,000
방	3	박성하	20,000	기	8	최용신	20,000	기	15	김정석	50,000	기	20	이윤구	20,000
광	3	서한수	20,000	기	9	강선구	100,000	기	15	김진옥	20,000	기	20	진관섭	20,000
전	3	송의석	100,000	광	10	안주현	100,000	기	15	노영재	20,000	기	20	황윤철	20,000
방	3	윤백현	20,000	전	10	오창균	20,000	기	15	원재면	20,000	전	21	남궁만	50,000
자	3	윤성도	20,000	광	10	이기성	20,000	기	16	강범석	20,000	기	21	이호정	20,000
전	3	이우정	20,000	광	10	이병화	20,000	기	16	박대용	20,000	기	21	임현철	20,000
전	3	이종욱	20,000	기	10	이완구	100,000	기	16	송상호	20,000	기	21	조정관	20,000
광	3	임헌호	20,000	방	12	권병출	50,000	기	16	양희대	20,000	기	21	황희원	20,000
광	3	장석기	20,000	기	12	김만옥	20,000	배	16	오한선	50,000	기	22	김연풍	100,000
자	4	나채규	20,000	기	12	서영환	20,000	기	16	윤석길	20,000	기	23	김대동	50,000
전	4	라상원	20,000	방	12	윤창석	100,000	기	16	이계천	20,000	전	23	차주삼	20,000
전	4	박주국	20,000	기	12	이승범	20,000	기	16	이언구	50,000	기	24	박종호	50,000
전	4	이승원	20,000	방	12	조우찬	20,000	기	16	이재근	20,000	전	24	소연섭	50,000
전	5	김양현	50,000	기	12	한대희	20,000	기	16	이재흥	20,000	기	24	정상복	20,000
전	5	김영수	60,000	기	13	문행모	100,000	기	16	이진구	20,000	전	25	김인문	20,000
광	6	권영범	20,000	기	13	이영일	20,000	전	16	최재의	20,000	기	25	정상우	50,000
광	6	오상근	20,000	기	13	정진국	20,000	기	16	황선영	20,000	기	31	권오진	50,000
방	7	강명석	50,000	기	14	김근식	20,000	기	17	권오섭	20,000	기	33	이재상	20,000
전	7	강석근	20,000	기	14	김병갑	20,000	기	17	안경헌	20,000	전	34	전상민	20,000
방	7	김이중	20,000	기	14	오승준	50,000	기	17	이대연	20,000	전자	51	박지호	20,000
광	7	배충광	20,000	기	14	이황훈	50,000	기	17	임계순	20,000	설비	51	한찬혁	20,000
자	7	안문용	20,000	기	14	임화섭	100,000	기	18	이은성	20,000	전	53	박헌렬	20,000
전	7	최충섭	20,000	기	14	주명진	20,000	기	19	배영환	20,000				

《고침》 7월호 기/14 김근식을 자/2 김근식으로 정정합니다.

기성동문회 연회비

상	1	송석구	20,000
자	1	송주영	20,000
방	7	김용춘	20,000
방	8	유재균	20,000
광	10	안주현	20,000
기	12	유병소	20,000
전	13	강석윤	20,000
기	13	김희준	20,000
기	13	송영헌	20,000
기	13	한상철	20,000
기	14	김용문	20,000
기	16	박철규	20,000
기	16	채홍종	20,000
기	19	김용협	20,000
기	19	류양수	20,000
기	20	김기찬	20,000
기	22	김정훈	20,000
기	26	김종일	20,000

회보광고비

기	18	박종용	50,000
금	18	유병각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기	18	장영우	100.000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는 인생의 황금기를 보낸 추억의 장소"

여태덕 교사 34년 교직 정년, 28년 모교 근무 전국기능경기 지도 공로

모교에 근무하면서 모교 제자들을 잘 지도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없이 입상시켰던 여태덕 교사가 34년 간 교직 생활(충남기계공고 재직 28년 6개월)을 마치고 올 8월 말로 정년하게 됐다.

여 교사는 모교 재직 28년 여 동안 학생생활부장으로 18년간 근무하며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교육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였고, 특히 기능 훈련을 지도하여 다수의 전국대회 1위 입상 등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산업사회 역군을 배출하는데 공헌했다.

여태덕 교사는 대전고를 나와 1979년 충남대공업교육대 금속교육학과에 입학하여 1984년 2월에 졸업하고 1987년 9월 경기도 의정부중학교에 처음 부임하여 근무하다가 1993년 3월 모교에 부임하여 모교에서 열과 성을 다해 제자를 길러냈다. 여태덕 교사는 2004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학교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2년 간 운영했다. 학교기업(SN주얼리)의 운영을 통하여 교과와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의 기능도 향상 및 창업마인드를 형성했다.

제자들과 함께 동아리활동 모습

특성화고의 기능을 고졸 수준 이상의 기능인력 양성과 중견 기술자 양성을 위한 직업 기초교육을 추구하는 동시에 중등단계 직업 교육기관으로 육성하여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기업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무엇보다 여 교사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9년간 주조직종 지도교사를 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1위) 2개, 은(2위) 1개, 동(3위) 1개를 획득하였고,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보석가공, 귀금속공예 직종 지도교사를 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1위) 1개, 은(2위) 5개, 동(3위) 2개, 4위 다수 등을 획득하여 훌륭한 기능인을 배출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다.

여태덕 교사는 특히 모교에서 학생생활부장을 18년 동안 맡으면서 학생들의 인성 교육 함양을 위하여 무던히 애를 썼다. 설송서당을 운영하기도 하고, 25년 간의 전공심화 동아리 활동 지도 경력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전문 기능 인력 양성에 노력했다.

제자들에게 열정을 기울인 결과로 여 교사는 동문회로부터 수차례 감사패를 받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교육감, 경기의정부교육청 교육장, 교원단체 총연합회장,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회장, 대전기능경기위원회위원장 등 다수를 수상하기도 했다.

여태덕 교사는 그동안의 실력을 인정받아 올 가을 모교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제자들을 이끌고 기간제 교사로 참가할 예정이다. 여태덕 교사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는 인생의 황금기를 보낸 소중한 추억의 장소"라며 "오랜 기간 동안 성원해주신 동문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종합정비업
으뜸자동차공업사
자동차검사! 환경심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2번지 (면허시험장)
TEL : (042) 282-1500 FAX : (042) 282-1501 ,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 근로자파견

필 엔 텍
FIL & TECH
대 표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9번길 36
TEL. (042)626-8548 팩스. 626-8549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세무사 박 종 용 (18회)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OK) 도장공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대연상사
제 일 테 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042) 670-7877, 7233
FAX:(042) 670-7876

(주)코핸즈 대리점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주)에어스타 대리점
콤프레샤 주문배작 및 수리 여러 주변기기 일체
한 국 기 계
대표 장영옥(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53호, 154호

누리상조
★ 매월 납입금 없는 후불방식 입니다.
◈기존 상조회사보다 저렴합니다.
대표: 나 익 성 (기 13회)
010-4433-0444

탐라돌구이
윤 여 갑 (10회)

H.P : 010-5454-1262
TEL : 042-823-8888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07-4
♣대형 주차장 완비♣

형규 소방, 가스, 주방 판매 서비스 충청지부
대표 김응범(기계과 30회) ☎ 010-3968-3880
※ 취급 품목 : 가스(가스감지기, 가스경보기, 가스차단장치)
소방(일반 소화기, 자동식 소화기, 분말확산 소화기)
주방(렌즈후드, 환풍기)
*동문님들께 최선을 다해 저렴하게 설치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한방몰을 검색해보세요.
세계인의 슈퍼푸드 미국판매1위
건강선물! 노니원액
대표 박봉구(23회) HP 010.2415.4477 TEL 1566-7516
물류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41-10 공장 | 충남 금산군 남일면 봉황로 186
한솔바이오한방(주) 한방몰 www.hanbang-mall.co.kr under4477@hanmail.net

미르마르커피
대표 조 성 민 (16회)
Hp 010.5402.3132
강릉 안목커피거리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2
T e l : 033-653-3130
FAX : 033-653-3132
E-mail : mirmarcoffee@naver.com

세무법인 YEE JEONG 이정
稅務法人 以 楨 유성지점
대표세무사
마 수 용 (18회) 010-4506-5089
[국세청 서기관, 북대전, 대전세무서 등 28년 근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비에스타워 506호 (충남대 서문앞)
Tel 042-719-8898 Fax 042-719-8810
신고대리 기장대리 불복청구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KIA Movement that inspires
(16회)
김 희 곤(男祈) 한밭대리점/카마스터
3405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446번길 10 (문지동)
Tel : 042-863-5454 Fax : 0504-466-5838
Mobile : 010-3300-5838
E-mail : kng7587@hanmail.net
A/S센터 : 080-200-2000

금산 왕대양꼬치 GEUMSAN WANG DAE LAMB

대표
권 경 중 (26회)
[32736]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16
Mobile : 010-3588-4135
예약문의 : 041) 751-2299

kt biz 공식파트너
HTM NET & COMMUNICATION (주)에이치티엠
정기채(기22회) 010-3411-7788
· 기업용 인터넷 기가오피스, 오피스IP, 네트워크보안
· 기업용 전화 인터넷전화, 일반전화, 전국대표번호
· 지능형 CCTV 영상 보안 감비
· 네트워크공사 신규사무실, 사무실이전 네트워크 공사
가입센터 1522-2536
www.happyinternet.kr

※동문회 운영에 연회비 납부가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정성이 소중합니다. 1년에 한번 내시는 연회비 2만원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납부는 동문회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총동문회사무실 대표전화 ☎252-5656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동문회보 협찬광고 받습니다.

충기동문들이 애독하는 설송소식에 동문 기업의 협찬광고를 저렴하게 게재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총동문회사무실 대표전화 ☎252-5656